

Kenneth Mathews 박사, 창세기, 세션 14,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19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4회,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19장입니다.

14과에서는 특히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항목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발전하고 있는 가까운 관계, 더 가까운 관계, 더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배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중보의 역할, 즉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중보하는 역할을 나타낼 것이며, 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12장 3절의 약속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수단이며 그가 어떻게 매우 중요한 중보 역할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세 명의 방문객에게 베푼 환대에 관한 18장 1절부터 15절부터 시작합니다. 고대의 전통에서는 환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여행자의 환대와 환대이며, 여행자가 올 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물론, 오늘날 여행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호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명의 방문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는 세 명의 방문자의 정체성을 놓고 씨름하는 고대와 초대교회의 해석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절 자체에서는 세 명의 방문객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선, 그들이 남자들로 식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2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세 사람이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와 동행하는 천사들을 나타냅니다. 세 분 중 한 분은 주님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10절에서는 주(Lord)가 작은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의 고유한 이름인 야훼(Yahweh)임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3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14장에서는 이 세 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 중 한 분은 야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예는 19장 1절입니다. 두 천사가 저녁에 소돔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뒤에 머무르셨고 그들은 16절부터 시작하여 18장 끝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롯을 구출할 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이 세 인물에 관해서는 아브라함이 매우 환영하는 인물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환영과 겸손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설명은 아브라함이 서둘러 그들을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합니다. 그런 다음 3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7절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며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롯과 대조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고 롯은 그 성문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일어나 영접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글썄, 우리는 이 구절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창세기 기록의 일반적인 취지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러한 대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우리가 또 하나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롯은 두 천사에게 후대를 보여주지만, 물론 그들이 즉시 두 천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의로움과 선함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롯은 안타깝게도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관문에서는 온갖 종류의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며, 특히 관문에서는 상업 활동과 사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19장에서 당신이 받은 인상은 롯이 지금까지 소돔 성의 관문에서 발견될 정도로 소돔 성에 통합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성 밖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문자에 관해서는 때때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랬습니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이 남자임을 드러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주님과 그분과 동행하는 두 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신 주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나타남, 모습입니다. 화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매우 중요한 상호 작용에 관한 한 첫 번째 대화는 사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사라의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1절에서 그녀는 출산할 나이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녀가 폐경을 경험했다는 언급일 것입니다. 12절.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내가 지치고 주인도 늙었으니 이제 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노라. 즉, 그녀가 생각하는 최악의 타이밍은 아닐 것이다.

그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이점은 14절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요점은 이 수사학적 질문이 '아니요, 주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들의 자손과 번영을 위해 주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항상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기독교 독자들에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발견한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관해서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당신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17장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도 나이 때문에 웃었다. 그래서 17장 17절과 18절에서 그는 웃었습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둘 다 웃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동 참가자라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녀에게는 주인의식, 즉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1년 안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아들에 관한 이전 장들에서는 이런 종류의 특수성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사라는 두려워했습니다(15절).

그래서 그녀는 웃으며 '나는 웃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연히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은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 난 웃지 않았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12절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녀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녀는 속으로 웃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생각과 태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정정합니다. 예, 당신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의 집, 이런 삶의 환경, 장막,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 그리고 그들은 빵과 떼에서 함께 이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둘 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약속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리고 주 하나님의 가족 사이의 더 가까운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언약을 이해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관계를 시작하시고 그 관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신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18장 후반부, 16절부터 33절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려고 함께 가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지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 우리가 배운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장은 13장과 14장입니다. 13장에서 롯이 가장 번영하고 아름답고 그의 가족 떼와 농업 사업에 도움이 될 땅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살핌을 받을지에 대한 비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13장에서 저자는 소돔과 고모라가 사악한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동방 민족 연맹이 서방 민족 연맹과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서방에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소돔 왕이 패하고 모든 부와 재산을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들도 인질로 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의 동맹을 결성했고 그와 그의 부하들은 따라잡기 위해 북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롯과 그의 가족과 빼앗겼던 많은 재물을 구해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두 왕을 만났습니다. 곧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 살렘과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19장에서

선지자들과 복음서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의 표어가 되었으며 사실상 무죄한 자들에 대한 비열한 학대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도덕적 결함과 부패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평야의 다른 도시들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도시들이 남쪽 끝 사해 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우리는 이것이 사실인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대화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제자도의 학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러한 여행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매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자신의 신뢰 안으로 데려가셨는지,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자비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1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님이 그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나타내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그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과 공유하실 때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하실 것이 12장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가져오실 이러한 신성한 약속들이 이 계시를 밝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기초 요소는 19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사랑의 선택은 그가 아브라함을 가르칠

정도이며,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의 백성을 가르칠 것이라고 가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택한 것은 그로 그 집안의 자녀들을 지도하여 여호와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 표현, 즉 주님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하지만 요점은 주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백성과 열방의 삶에서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시는 방식과 주님의 성품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 옳고 공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주님의 도를 지키나요? 글썄요, 그들은 주님의 길을 배워야 하고, 그런 다음 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성품을 행하고 생활함으로써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실 내용 사이에 일어나는 이 특별한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이사야는 아브라함, 또는 이사야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우정은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여호와와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께서는 곧 일어날 일, 즉 자신의 체포와 죽음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친구로서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부활의 삶. 그리고 또한 그들이 주님의 친구라고 밝히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그들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 15절입니다.

이제 20-3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주님 사이의 흥정에 이르면 2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들의 죄가 큼니다. 너무 괴로워서 내려가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바벨탑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일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만큼 나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근 도시 헤브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며, 지형학적으로 오늘날 사해인 남쪽 부분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러므로 사실 천사인 사람들은 주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고 하셨는데 두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려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천사들이 정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메신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메신저로서 주님의 지식과 지위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더 많은 일이 있습니까? 복수형은 암시적이고 다소 추측적이지만, 아마도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3장, 11장에서 발견한 내용에 따라 하나님은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복수 대명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통일성 안에는 복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변덕스럽거나 불의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질문하신다는 유용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조사합니다. 그는 이 부르짖음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 심각성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도시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 도시들을 보존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조사하면서 주님께 일련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의롭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주께서 무죄한 자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50명부터 마지막 5명까지 순차적으로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32절에서 5명, 10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도시들을 아끼시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점점 더 적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즉, 그 성읍들이 완전히 멸망하여 무죄한 자가 악인과 함께 멸망되거나, 그 성읍이 거기 사는 무죄한 자로 인하여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실제로 세 번째 옵션을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롯의 가족 중 일부가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택은 무고한 롯을 살려두고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과 의심을 제기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온 땅의 재판관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의 심판자로서 자비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은 당연히 주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백한 것 너머를 보시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두 가지 옵션은 우리의 유한성, 즉 아브라함의 유한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다음에 나오는 설명 외에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린 결정에 세 번째 선택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위한 유일한 대답은 단지 주님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욥에게서 발견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겪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이고, 일단 욥은 하나님이 물질 세계의 관점에서 온 땅의 심판자이실 뿐 아니라 물질 세계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더 잘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균형, 도덕적 세계. 그러므로 온 땅의 심판관이여 이 표현은 19절 아니 25절에 있느니라 온 땅의 심판관이여 이 말씀이 네게는 불가하니라 온 땅의 심판관이 의를 행하시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그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둘 다 긍휼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가 그의 조카 롯에게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그의 조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 화를 내고 롯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롯에 대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롯과 그의 가족과 무죄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19장에 이르면 실제로 1-29절에서 천사들이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19장 마지막 부분에 롯과 그의 두 딸과의 근친상간 관계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조를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태초에 세 명의 방문객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은 한낮의 더위 속에서였습니다.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저녁때에 소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낮과 밤, 달리는 것과 앉아 있는 것, 아브라함 편에서는 헤브론 밖에 있었지만 롯에 의해 소돔의 삶에 너무 밀접하게 통합되고 흡수된 것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롯의 반응은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환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문화, 그리고 그것은 소돔의 남자들이 집에 와서 성적인 목적을 위해 남자로 나타나는 천사들인 남자들을 알자고 주장했을 때 롯의 딸들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들이 롯을 불렀는데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NIV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는 단어는 성적인 관계에 대한 은유이며, 그 가장 좋은 예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거기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고 하와가 가인을 잉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 도시의 남자들이 롯을 방문하고 호스트의 큰 가치와 명성 때문에 그들이 이해한

대로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롯은 자신의 처녀 딸들을 이 사람들에게 넘겨 그들이 원하는 성적 관계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 19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상시킵니다.

사사기 19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반에서 천사들을 구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롯인데 실제로는 천사들이 닥칠 재앙에서 롯을 구출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도시들. 처음에는 문을 부수고 방문객을 성적 쾌락으로 데려가려는 남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들어와서 집 문밖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노소를 막론하고 눈이 멀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느니라(11절). 이제 그의 가족에는 사위들과 두 딸, 그리고 그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자비롭게도 그들을 보호 하고 그들도 탈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사위들도 일원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인구; 아마도 그들은 소돔 성의 구성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이디어를 거부했고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롯의 아내 자신이 소돔을 떠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과 그곳의 매력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속히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려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성읍이 벌을 받을 때에 너도 멸망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그리고 그가 주저했을 때, 롯이 소돔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에 있는 천사들의 특별한 자비의 행위인 그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안전하게 도시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판 어느 곳에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갈 것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명시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암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명령을 받았고, 권고를 받았으며, 육체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에서 취했던 삶을 거부하고, 소돔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악함에 완전히 매진하지는 않았지만 타협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하지만 소돔의 사악한 사악함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하며, 악과 타협하면 재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어떻게 탈출하는가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내는 소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26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 이 말이 후대에 속담도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32절. 놀랍게도 오늘날 에도 사해 남쪽 끝에서 소금 기둥이 발견됩니다. 23절에 보면, 롯이 광야 남쪽에 있는 소알에 이를 때에 해가 돋았으니 오늘은 아침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과 유황을 비 같이 내리시니라 하늘에서 오신 주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악한 인류 전체를 휩쓸었던 홍수를 일으켰던 홍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29절은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롯을 기억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수 계정으로 백업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에 대한 그분의 헌신입니다.

그런 다음 8장과 그 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에는 홍수 물의 점진적인 하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루아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라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성령,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1장 2절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은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영혼이 맴돌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여 물을 소멸시키시고, 따라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배에서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롯이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인 것을 보면 롯과 그의 가족은 친척과 식구의 인연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해서 그분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롯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시어 롯이 살던 성읍들을 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롯의 후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추악한 이야기 중 하나이며, 이는 롯의 딸들이 가져온 근친상간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롯이 요청한 것은 소알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를 수용하고 롯에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너무 굴욕을 느껴 은둔자가 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30절에 보면 롯과 그의 두 딸이 소알을 떠나 산지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소알에 머물기를 두려워함이라. 그와 그의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그를 술에 취하게 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을 보전하시며"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관습, 이 전통, 이러한 생활 방식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두 딸이 아버지와 이러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만약 그가 술에 취해 마음속으로 바르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에 저항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노아에게 일어난 일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 그는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술 취함과 별거벗음은 그의 별거벗음을 비웃는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그의 세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큰 딸이 아버지를 따라 많이 갔더니 다음 날 작은 딸도 따라 갔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 트랜스요르단 종족이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의 미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두 종족 집단이었으며, 따라서 이 두 종족, 즉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사이에 미래의 이스라엘 족속을 상대로 벌어지는 가장 악랄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상과 이 전쟁이 일어날 역대하의 병행 구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산의 시작, 특별한 방법으로 이삭의 탄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관계 사이에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의 유산은 가장 비열하게 끝났습니다.

그것은 근친상간으로 인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과 그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신뢰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리라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중보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과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으로 어떻게 정의와 자비를 행하셨는가를 그에게 보여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롯의 무고한 집안, 곧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존하심으로써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도 있고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도 있느니라 다음 수업인 15과는 아브라함에 관한 마지막 수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20장부터 25장까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4회,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19장입니다.